우리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32154887 생명과학과 하민기

 나는 이 책을 읽기 전 페미니스트를 좋지 않게 생각했다. 정확히는 일부 페미니스트를 지칭하는 가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 대학교 내에 같은 학과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군인일 당시에 그들은 소수의 군인의 행태를 보고 더럽다고 욕하거나 남자들은 열등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몇 명이 동조하는 것을 SNS로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들이 문화적으로 억압받고 현재는 사회적 약자인 것은 인정하며 그것에 대한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것은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여성이 우월하고 남성들은 열등하다는 논리를 펼친다면 내 입장에서는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최근 EBS의 ‘까칠남녀’ 라는 프로그램이 폐지 되었다. 그것을 보고 아직 양성평등의 인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평등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너무 급진적인 사상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데 TV를 시청하는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일종의 보호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사상이 인정되기 전까지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그에 반해 페미니즘은 그리 급진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당연한 권리에 대한 운동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성 사회화를 반대하며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저자의 생각은 나도 동조를 한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자면 여성이지만 올곧고 직설적이며 당당한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성들도 세심하며 소극적인 사람들도 여럿 있다. 일종의 세뇌처럼 남성이니까 남성적이어야 한다, 여성이니까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구세대의 생각이며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직원 채용의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성의 채용 비율이 적으며 이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비율로만 따지면 그런 것은 차별이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사내 문화가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는 풍조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차별이 있다고 주장할 때에는 나이와 직무 관련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경우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서 그것을 경력(장교, 부사관 등의 간부)이나 필수 사항(군필)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적 경험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항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본다. 남성이나 여성 둘 다 여기서 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아주 당연한 운동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나이지리아의 여성 권리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페미니스트는 여성에 대한 우월주의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한다는 저자의 생각도 흥미로웠다. 이 책은 페미니스트를 지칭하는 소수의 가짜 페미니스트에게 혹은 페미니즘에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다.